

http://dx.doi.org/10.17703/JCCT.2018.4.4.67

JCCT 2018-11-8

장례문화 인식과 웰엔딩의 실천과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Awareness of Funeral Culture and Well-Ending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City-

이필도*, 김혁우**

Pil-Do Lee*, Hyug-Woo Kim**

요약 장례문화는 화장위주의 장례방법 개선에서 죽은 자의 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장례문화는 미래지향적으로 재조명해 보고, 웰엔딩(well-ending)과 연계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장례문화 변화과정과 서울시 장례문화의 문제점 진단을 통해 웰엔딩의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례문화 의식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웰엔딩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고 죽음문화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웰엔딩 문화의 체계적인 접근은 죽음의 질적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장례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웰엔딩 준비 교육은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장사시설은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 복지시설로 확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주요어 : 장례문화, 인식, 웰엔딩, 실천과제

Abstract We should step forward from the cremation-centered funeral and consider the well-ending of the deceased from a welfare perspec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highlight our funeral culture from a welfare perspective and to explore developmental policies in association with the well-ending of the deceas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ing history of funeral culture, to identify problems arising in the funeral culture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nd finally present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for funeral culture. We conducted the survey on awareness of funeral culture with recruiting 500 citizens in Seoul City.

Well-ending culture is the process which secures human dignity until the last moment of the death and improves the quality of death culture. Systematic approach to well-ending culture will gain the objectives of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death. Therefore, the funeral culture paradigm should be shifted for the settlement of funeral culture applicable to aging society. Education for well-ending preparation will give a meaning of life for both the persons waiting for the death as well as the family members. We also should establish funeral facilities as culture welfare facilities where all the generations share.

Key words : Funeral Culture, Awareness, Well-ending, Practical tasks, Seoul

*정회원,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준회원,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교신자)

접수일: 2018년 7월 20일, 수정완료일: 2018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13일

Received: July 20, 2018 / Revised: August 25, 2018

Accepted: September 13, 2018

**Corresponding Author: miheaven@empas.com

Ph. D. Student, Dept. of Sociology Sungkyunkwan Univ., Korea

I. 서론

사회 전반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장례문화는 생활양식과 가치관 등에 영향을 받아 변화를 겪게 된다. 전통적 장례문화는 주로 동네 어른이나 마을단위 공동체 중심으로 염습과 장례절차에 필요한 용품을 제공해 주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장례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매장중심이었던 장례문화는 묘지 설치의 제한과 실질적인 묘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화장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른 주거 형태의 변화와 편의주의 확산은 장례장소가 집 안에서 병원 영안실로, 현재의 장례식장의 이용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또한 인구구조와 장례 인식의 변화는 장례를 사전의 미리 준비하거나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부(2016)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 수는 1,000여개가 넘었으며 상조회사는 214개, 가입자는 419만명에 이른다[1].

한편, 인구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현재 산 자를 위한 복지인 웰빙(Well-Being)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복지인 웰엔딩(Well-Ending)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대한 원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사회의 인구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령자들의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죽음의 질적 문제와 장례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생겨난 장례문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인 죽음을, 존엄성을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며, 삶의 질과 연계된 죽음의 질적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장례문화는 단순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복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지를 지닌다. 장례가 단순히 죽은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자들의 공유되는 문제라 생각해 본다면 장례문화는 웰엔딩과 연계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례문화 변화과정을 통해 현재의 장례문화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행 장례문화의 문제점 진단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며, 장례문화 발전방향으로서 웰엔딩 가이드라인과 장례문화 실천전략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6년 서울시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례문화 인식을 파악 해 보고 이에 대한 함의로써 웰엔딩의 실천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2].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본은 다단계 층화 추출법을 이용하여 500명을 표본추출 하였다, 표본할당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2016년 5월 기준)을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변수(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 배분을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전화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6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이며, 조사결과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38\%$ 이다.

3. 자료 분석 방법

분석에는 통계프로그램인 R과 R-studio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항목은 노후에 살고 싶은 곳, 요양시설 이용 의사, 희망하는 임종 장소, 자신의 임종을 지킬 사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 둔 사항, 희망 장례(장법) 방법, 제사 유무, 장지관리와 제사가 지속될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을 하였고, 주요 설문 내용의 차이분석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우선 성별의 비율은 남성이 48.6%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51.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40대가 20.6%, 30대가

19.6%, 50대가 19.2%로 나타났으며, 20대는 17.6%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서울지역은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이 나뉘며, 물길의 흐름으로 동과 서가 구분이 된다. 이에 따라 강북동 지역의 응답률은 3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남서가 30.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남동이 20.8%, 강북서가 17.4%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을 보면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24.5%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1.9%,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1.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은 전체 응답 중 54.0%로 나타났고, 고졸의 경우는 32.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업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화이트칼라가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부인 경우가 24.1%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이라 응답한 경우가 15.3%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희망하는 장례 방향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답 문항은 검소한 장례(59.4%)를 원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는 응답(30.0%)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검소하게 치루길 바란다는 응답에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56.4%)보다는 여성의 응답률(62.2%)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50대에서 각각 66.1%, 67.2%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구 소득별로는 보면 400만원에서 600만원에서 응답률(65.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Gender	Male	243(48.6)
	Female	257(51.4)
Age	20's	88(17.6)
	30's	98(19.6)
	40's	103(20.6)
	50's	96(19.2)
	Over 60's	115(23)
Region	Northwest of HanRiver	87(17.4)
	Northeast of HanRiver	157(31.4)
	Southwest of HanRiver	152(30.4)
	Southeast of HanRiver	104(20.8)
Income	Less 2 million won	109(21.7)
	2~4 million won	122(24.5)

	4 ~6 million won	109(21.9)
	More 6 million won	81(16.3)
	DK or NA	78(15.7)
Education	Below middle graduation	59(11.9)
	High graduation	162(32.4)
	University graduation	270(54)
	DK or NA	9(1.7)
Career	Self-employment	77(15.3)
	Blue-collar	52(10.4)
	White-collar	140(28)
	Housewife	121(24.1)
	Student	32(6.3)
	Inoccupation	73(14.5)
	DK or NA	7(1.4)

Note : N=500

이러한 장례 방향에 대한 응답의 의미는 인구구조와 맥이 닿아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노인인구가 2000년 7.2%, 2010년 10.7%, 2016년 65세 인구는 662만 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이다. 2020년에는 65세 인구 비율이 15.1%에 도달하여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핵가족화와 편의주의 확산은 장례문화와 장사시설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다른 조사에서 역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장례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소비자 639명을 대상으로 장례문화 인식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작고 검소한 장례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790명 중 543명(68.7%)이 “국가경제, 효율성 차원에서 작고 검소한 장례문화로 정착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205명(26.0%)은 “부유층은 좀 호화로우도 좋다”거나 “효 문화와 품위유지를 위해 작고 검소한 장례문화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와 연관성이 있는 질문으로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둔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조회사 또는 장례보험 가입’이 15.1%, ‘구두유언 또는 유언장’이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포함한 가족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Table 3].

3) 장법에 대한 인식 변화

다음으로 희망하는 장법에 대해서는 ‘화장 후 봉안’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표 2. 조사대상자의 희망하는 장례방향

Table 2. Desired funeral direction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frugal funeral		Delegation to children		According to the formalities of the funeral		Luxuriously		Performance
		N	%	N	%	N	%	N	%	
Total(Sum)		297	59.4	150	30	31	6.3	2	0.4	-
Gender	Male	137	56.4	83	34.3	8	3.1	2	0.7	X ² =16.23 df=3, p=0.013
	Female	160	62.2	67	26	24	9.3	0	0	
Age	20's	42	47.4	30	33.6	11	12.3	1	1.1	X ² =29.213 df=12 p=0.003
	30's	59	60.7	26	26.4	8	8	0	0	
	40's	68	66.1	27	26.3	1	1	0	0	
	50's	64	67.2	27	27.7	4	4	0	0	
	Over 60's	63	54.8	41	35.6	8	6.8	1	0.7	
Region	Northwest of HanRiver	55	63	23	26.3	4	5.1	0	0	X ² =34.555 df=9 p=0.501
	Northeast of HanRiver	95	60.4	45	28.9	10	6.6	0	0	
	Southwest of HanRiver	87	57	49	32.4	10	6.4	1	0.5	
	Southeast of HanRiver	61	58.2	33	31.4	7	6.7	1	1	
Income	Less 2 million won	61	56.6	33	30	8	7.6	0	0	X ² =12.430 df=12 p=0.002
	2~4 million won	72	58.7	38	30.8	7	5.6	0	0	
	4 ~6 million won	72	65.8	28	25.6	8	7.7	0	0	
	More 6 million won	48	58.5	27	33.5	3	3.7	2	2.2	
	DK or NA	44	56.1	25	31.4	5	6.2	0	0	
Education	Below middle graduation	25	42.7	29	49.5	4	6.1	0	0	X ² =17.423 df=9 p=0.034
	High graduation	90	55.9	52	32.4	8	4.8	1	0.5	
	University graduation	178	65.9	65	24.2	18	6.7	1	0.4	
	DK or NA	3	34.4	3	32.8	2	21.3	0	0	
Career	Self-employment	41	53.5	27	35	5	6.2	0	0	X ² =23.679 df=18 p=0.023
	Blue-collar	26	49.3	22	41.4	0	0	0	0	
	White-collar	93	66.5	37	26.5	6	4.1	0	0	
	Housewife	74	61.3	29	24.1	14	11.6	0	0	
	Student	13	41.1	12	37.1	5	15.6	1	3.2	
	Inoccupation	45	62.4	22	30.3	2	2.7	1	1.1	
	DK or NA	5	72	2	28	0	0	0	0	

Note : N=500, missing values other(n=6), DK(n=14)

로는 ‘강, 산이나 지정 장소에 뿌리는 산골’이 22.0%, ‘화장 후 자연장지에 안장’이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별, 지역, 수입, 교육수준에서의 변수가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사실 이런 조사결과는 본 연구뿐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동일질문에 77.3%(494명)는 화장을 선택하였고, 화장을 선택한 응답자 중 494명 중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이용이 368명(74.5%)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장(수목장 및 잔디장) 117명(23.7%), 산골 9명(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4].

장사시설은 선호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국민 의식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 장사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자신의 지역의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거나 비합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이를 막고 있어 장사시설의 확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자연장 등 장사시설의 이용실적은 조사결과 나타난 선호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장 선호를 시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자연장지를 보급함은 물론, 제 3자에 의해 자연장 선호자가 이용가격이 비싼 봉안시설로 이동하지 않도록 수요왜곡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김수봉, 2012). 한편 인구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장사시설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사회 전반의 편의주의의 확산되면 장사시설은 고인과 유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5].

표 3. 조사대상자의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둔 사항

Table 3. Prepared in advance for the death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ot at all		Joining a company or funeral insurance		nuncupation or will		Documents that specify how to carry out your own funeral		Documents defining his treatment range before death		Performance
		N	%	N	%	N	%	N	%	N	%	
Total(Sum)		379	75.7	76	15.1	27	5.3	14	2.9	10	2.1	
Gender	Male	189	77.7	35	14.4	13	5.5	4	1.6	3	1	X ² =8.494 df=4 p=0.005
	Female	190	73.9	41	15.8	13	5.1	11	4.1	8	3.1	
Age	20's	75	85.3	6	6.7	2	2.3	3	3.4	2	2.3	X ² =8.718 df=16 p=0.089
	30's	78	79.3	15	15.7	4	4	0	0	2	2	
	40's	83	80.2	14	13.2	3	2.8	4	3.7	0	0	
	50's	66	68.5	19	19.3	10	10.2	5	5.1	3	3.1	
	Over 60's	78	67.4	22	19.2	8	6.9	3	2.3	3	3	
Region	Northwest of HanRiver	71	82.1	11	12.4	3	3	0	0	1	1.1	X ² =18.955 df=12 p=0.123
	Northeast of HanRiver	120	76.2	23	14.4	7	4.7	5	2.9	4	2.8	
	Southwest of HanRiver	114	74.7	25	16.3	9	5.8	5	3.1	2	1.3	
	Southeast of HanRiver	74	71	17	16.7	8	7.5	5	4.8	3	2.9	
Income	Less 2 million won	85	78.4	14	13.2	4	3.3	2	1.7	2	1.6	X ² =25.233 df=16 p=0.043
	2~4 million won	86	70.2	21	17.2	9	7.1	6	4.7	3	2.4	
	4~6 million won	82	74.6	22	20.1	2	1.6	4	3.4	1	0.7	
	More 6 million won	59	72.9	13	16.5	8	9.4	3	3.6	5	6.1	
	DK or NA	67	85.2	5	6	5	6.2	0	0	0	0	
Education	Below middle graduation	43	72.9	11	19.3	0	0	1	1.6	1	1.3	X ² =12.345 df=12 p=0.103
	High graduation	119	73.8	28	17.2	6	3.6	6	3.5	2	1.2	
	University graduation	210	77.8	36	13.4	19	7	8	2.8	8	2.8	
	DK or NA	6	67.2	0	0	2	22.3	0	0	0	0	
Career	Self-employment	49	64.2	19	24.8	7	9.7	3	3.5	4	4.6	X ² =21.254 df=24 p=0.878
	Blue-collar	41	78.8	4	7.1	4	7.1	3	5.5	0	0	
	White-collar	109	78.2	20	14	8	5.6	3	2.1	3	2.1	
	Housewife	92	75.9	19	15.6	5	4.5	3	2.3	3	2.4	
	Student	29	90.5	0	0	0	0	1	3.2	0	0	
	Inoccupation	55	75.8	14	18.8	2	2.8	0	0	0	0	
	DK or NA	4	57.6	1	13.6	0	0	2	28.8	1	14.4	

Note : N=500, missing values other(n=8), DK(n=6).

III.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전통적 장례는 가족 및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나타내는 사회적 징표로 수용되면서 중대한 의례였다[6].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법에서 화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화장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화장한 유골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욕구가 다양화되었다. 한편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은 여전히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화장장 및 봉안시설, 자연장 등 새로운 장사시설에 대한 신규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 설치는 여전히 부정적 경향을 보인다. 현행 장례문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전반적인 체면 및 과시문화가 장례문화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과시와 남의 이목을 의식한 장례관행은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과도한 경쟁과 상업적 이해가 맞물리면서 고비용 구조를 유도하고 있다. 상가 집은 누가 보낸 화환인가 여부와 화환이 몇 개 들어왔는지 관심을 두고 있다. 상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떠들썩한지로 상주의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동안의 장례문화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체면유지와 사회적 경제적 논리에 밀려 문화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희망하는 장법

Table 4. Hopeful technique funeral like a burial and cremation

Characteristics	Division	Um After cremation		Sprinkle at designated place		In natural wood		Hometown & Burial		Buried in a park cemetery		Performance
		N	%	N	%	N	%	N	%	N	%	
Total(Sum)		140	27.9	110	22	100	19.9	63	12.6	22	4.4	
Gender	Male	67	27.7	55	22.7	36	14.6	36	14.7	9	3.9	X ² =16.068 df=4 p=0.003
	Female	72	28.1	55	21.3	64	24.9	27	10.6	13	5	
Age	20's	34	39.2	13	14.7	16	18.1	8	8.9	2	2.3	X ² =30.455 df=16 p=0.063
	30's	31	31.2	21	21.4	18	18.7	13	12.9	2	1.9	
	40's	26	24.8	26	25.5	26	25.3	11	10.4	2	1.9	
	50's	26	27.2	21	21.6	23	23.5	13	13.4	5	5.1	
	Over 60's	23	19.8	29	25.2	17	14.6	19	16.5	11	9.9	
Region	Northwest of HanRiver	25	29.1	20	23.4	16	17.9	8	8.9	4	4.1	X ² =15.406 df=12 p=0.004
	Northeast of HanRiver	41	26.4	34	21.9	34	21.5	24	15.6	9	5.5	
	Southwest of HanRiver	47	30.7	31	20.2	26	17.1	18	12.2	7	4.8	
	Southeast of HanRiver	26	25.1	24	23.3	24	23.4	12	11.9	3	2.5	
Income	Less 2 million won	22	19.9	33	30.2	20	18.7	16	15	3	3.1	X ² =54.248 df=16 p=0.000
	2~4 million won	41	33.6	23	18.9	24	20	15	12.5	6	4.7	
	4 ~6 million won	35	32	19	17.5	26	23.7	13	12	5	4.3	
	More 6 million won	23	28.8	21	25.2	14	16.6	11	13.1	3	3.6	
	DK or NA	18	23.5	14	18.2	15	19.8	8	9.7	5	6.8	
Education	Below middle graduation	11	18.1	14	23.6	11	18.2	9	15.2	4	7.1	X ² =34.870 df=12 p=0.004
	High graduation	47	28.8	30	18.4	35	21.9	22	13.6	7	4.3	
	University graduation	80	29.7	64	23.7	53	19.8	29	10.8	10	3.7	
	DK or NA	2	21.9	2	22.9	0	0	3	32.8	1	11.5	
Career	Self-employment	22	28.9	20	25.7	15	20.2	7	8.9	3	3.6	X ² =19.423 df=24 p=0.247
	Blue-collar	14	27.5	12	23.9	11	21.8	6	10.9	1	1.5	
	White-collar	42	30.3	26	18.8	25	18.1	19	13.4	4	2.6	
	Housewife	26	21.8	29	24.3	25	21.1	19	15.4	8	6.8	
	Student	12	37.6	3	9.5	10	31.4	2	6.1	1	3.2	
	Inoccupation	21	28.5	17	23.6	11	15.4	11	15.6	5	6.5	
	DK or NA	2	28	2	28.8	1	14.4	0	0	1	14.4	

Note : N=500, missing values other(n=10), DK(n=56).

둘째, 장례의 부정적 인식과 장사시설의 낙후성이다. 현행 장례 및 장사관련 시설은 수요에 비해 현대화된 시설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장례문화와 장사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자신의 지역에서는 장례시설이 확충되는 것을 기피하는 이른바 지역이기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장사시설은 지역적으로 볼 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기존시설은 시설이 낙후되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편익시설을 없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장사시설은 단순히 죽은 자를 처리하는 공간과 시설이 아니다. 장례의식을 통해 바람직한 장묘문화에 대한 규범을 강화해주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 주는 시설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장사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죽음의 질적 문제와 장례의 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죽음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해 왔다. 고인과 유가족들이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는 문상객이 정서적 감정적 교류와 문화적 매개기능을 못하고 있다. 전문적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장례식장과, 상조업체 등의 장례지도사는 장례를 상업적 절차로만 인식하여 비용적인 측면만 부각시킨다. 장례문화에 있어서 문화적 측면 접근보다는 장례절차 진행의 비용적인 요소만이 강조되기 때문에 장례문화는 죽음의 질적인 측면을 높여 주지 못하고 있다[7]. 장례문화는 죽음의 질적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품격있는 장례문화를 기대할 수 없다. 품격 있는 장례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죽음의 의례(ritual)

를 통하여 국민들의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 사회의 규범은 명령으로 시달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의례 즉 상징화가 반복됨으로서 장례관습으로 정착하기 때문이다.

IV. 웰엔딩의 실천과제: 개선방안

한국죽음학회에서는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2010)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종 직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환자 당사자와 보호자는 자신과 가족의 죽음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환자가 임종한 후 유족의 상실감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8]. 본고에서의 사용된 웰엔딩 용어는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현상을 다루는 형식적, 제도적 프로그램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죽음준비에 대한 하는 이해를 돕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웰엔딩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과 죽음 이후의 처리방법인 장례문화와 연계하여 삶의 질적 향상과 죽음의 질적인 향상의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문화적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웰엔딩 문화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해 주며,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죽음의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정형화된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1. 가이드라인

우리 사회에서는 삶의 질의 향상만 강조한 나머지 죽음의 질적 문제에 관해서는 외면 내지는 부정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준비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한다. 인간에게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만큼이나 어떻게 죽는가도 중요하다. 죽음의 질적 문제는 당사자의 임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례와 같은 죽음이후의 문제와도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은퇴이후 삶의 대한 새로운 기획 및 확실한 보장요구가 증대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에 따른 부모부양문화의 급속한 퇴색과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 그리고 죽음에 대한 능동적 대응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여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며 죽음을 준비하고 그 이후 장례를 통해 슬픔을 완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간의 죽음과 죽음 준비, 장례절차 진행 등 각 단계별로 나누어 죽음의 질적 문제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웰엔딩은 삶을 보다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품위 있는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웰엔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 장례문화와 웰엔딩

죽음교육과 상담협회는 「죽음학 핸드북」을 통해 대중들에게 자기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다. 「죽음학 핸드북」은 죽음학 분야에서 가장, 최신 학문과 연구 및 임상 적용의 성과를 담아서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상실과 슬픔 애도, 평가 및 교육활동, 죽음교육 등 죽음학에 관한 이론과 실천을 위한 핵심영역을 망라하고 있다[9]. 인간의 존엄성 되찾을 수 있는 죽음맛이를 위한 내용을 통해 아름다운 생의 마무리를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경우 죽음의 순간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웰엔딩은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마다 간결하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엄숙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예를 들면, 사랑한다, 고맙다, 애썼다)하도록 하고,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스티브 잡스는 최후암으로 병상에 누워 과거를 회상하며 남긴 메시지는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 이르렀던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의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였다.

다음으로 장례 절차의 준비와 진행 단계이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해진 장례절차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례는 형식적이거나 허례허식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절차는 경건하면서도 슬픔을 다해 정성스럽게 치루어야 한다. 모든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을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사전 장례의향서를 작성해 놓는 등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웰엔딩 내용에 포함된다.

웰엔딩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해 주며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아름답

다운 죽음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과정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성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존엄성을 유지한 채 삶의 질과 연계된 죽음의 질적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품격있는 장례문화는,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와 문화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인간의 집단적인 모든 일상적 행동 내지 생활방식을 말한다. 다양한 문화의 속성은 의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의례는 그 사회의 사상·정서·제도 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며,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거행하는 정형화된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10]. 웰엔딩 문화는 관련 산업의 성장과도 연결되며, 유사관련학과 취업진로와 연결됨으로서 다양한 계층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특히 웰엔딩 교육은 우리사회의 삶과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죽음의 이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웰엔딩 문화의 체계적인 접근은 합리적인 죽음문화의 창출과 죽음의 질적 개선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실천과제

장례는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높이며 살아있는 사람에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감정적,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데 있다. 장례문화는 그 시대의 환경과 국민정서,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실천 모델이 필요하다. 여기서 장례문화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장례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 장례문화의 패러다임은 가치관의 계승, 다양성, 친환경성 등의 기본 틀 속에서 비전 제시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상장례 의례의 중요성 강조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만큼은 최대한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정성스럽게 장례절차를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례문화는 인위적 노력에 의해서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 차원의 인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 늦기전 장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체면과 과시성 장례문화를 배제해야 한다. 장례에 대한 사전 준비와 더불어 형식적이고 허례허식적인

장례관행을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예의와 품격을 갖춘 장례방법과 장례절차를 실천하도록 한다. 특히 장례절차에 있어서 불필요한 장례용품과 음식물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나가야 한다. 장례문화의 올바른 자리매김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웰엔딩의 준비가 필요하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와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죽음과 관련 질적 문제가 매우 비중 있는 분야로 부각될 것이다. 웰엔딩은 죽음을 능동적으로 준비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도와주는 방법이다. 웰엔딩은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심적인 준비와 생을 마무리 하는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전 유언장, 사전 장례의향서 등을 미리 작성해 보고, 자신이 선택한 장례방법 및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족들과 상의하여 장례방법, 화장이후 유골 처리방법 등 장례절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다.

넷째, 장례서비스 전달체계 및 장사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장례서비스 수요는 다양화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장사시설의 다양화 및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장례서비스는 죽은 자를 위한 서비스 아니라 죽음의 문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후 복지서비스이어야 한다. 국민적 욕구 및 수준에 맞는 장례서비스와 거래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에서는 장사시설 확충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장사시설은 친환경적 장법, 관리의 편의성, 경제적 비용효과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이며, 종합적인 장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V. 결론

‘죽음의 질적’ 측면에서 장례방법은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장례 이후로도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가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죽은 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살아 있는 자는 일상생활의 안일함 속에 약해져 가던 도덕적 감수

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는 가치관과 규범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죽음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건전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장례문화는 삶과 죽음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와 죽음의 질적 수준 향상시켜야 한다. 웰엔딩은 죽음의 질적 측면과 장례의 기능적 측면을 포괄하여 문화적인 접근을 추구해 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웰엔딩 문화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장사시설은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 시설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사시설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의 연대를 강화해 주며, 친환경성, 다양성 등의 역점을 두고 웰엔딩 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장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낙후된 장사시설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을 버려야 한다, 장례절차에 예의를 갖추고 경건하게 진행하며, 전문적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사시설은 죽음의 질적 개선을 위해 장례문화 복지시설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아니라 '찾아가고 싶은 장례문화 시설'로 승화시켜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장례문화는 죽음의 질적 문제를 향상시킬 뿐 만 아니라 삶의 돌아보면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연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riefing of cremation ratio press release, 2016.
[2] Seoul Facilities Corporation, Survey report, direction of desirable business facilities in old age, 2016.
[3] H. S. Jang, Traditional Korean tradition and improvement plan, Family Studies, Vol. 8, 1996.
[4] Korea Consumer Agency,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funeral culture recognition survey, 2015.
[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ublic awareness of business systems and funeral culture, 2011.
[6] S. I. Kim, Death quality management through the revival of the funeral industry, Cultural

Science, Vol.3, 2012.
[7] H. S. Jang, Ibid.
[8] Korea Death Academy, Welding guidelines established for Death, 2013.
[9] B. S. Jun, Why Death Education Is Needed, Korea Death Academy, 2013.
[10] T. Y. Yong, What is culture, Academic history, 1999.
[11] G. H. Kim, etc., Planning and policy direction of supply and demand of business facilities in Seoul, Seoul Research Institute, 2007.
[12] S. B. Kim, Business environment change and response strategy, Health and Welfare Foru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9.
[13] S. D. Kim,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raditional tradition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0.
[14] H. W. Kim, P. D. Lee, Estimation of crematory facility demand in suwon city using seasonal ARIMA mode, J Health Info Stat, Vol. 42, No. 4, 2017.
[15] Y. J. Lee, Influence of Self-Rated Health Statu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Health Behavior in Urban Elderly People Living Alon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2, pp.81-87, May 31, 2018.
[16] Jung-Ae Kim, Effects of Recognition of the Pregnancy necessity on Emotional Happiness, The mediation effect of health control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6 No.3 12-21, 2018.